

Comparis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dministrators' Perception of Career Education

Chang, Eun Mi (Soongsi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Jun, JuSung¹⁾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the perception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dministrators (principals and vice-principals) on career education.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of the 'Survey for School Administrators' among '2019 Survey on the Present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4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spectively, a total of 1,200 principals or vice principal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dministrators were generally highly aware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areer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students' challenging (entrepreneur) spirit and entrepreneurial experience education, and the help of career education policies. Second, there were generally differences betwe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dministrators in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areer education,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students' challenging (entrepreneur) spirit and entrepreneurial experience education, and the help of career education policies. Finally, in order to vitalize career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t is necessary to firstly support 'budget and environmental support related to career education',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nhancing competency', and 'improving curriculum and classes for expanding career education'.

Key Words : Career education, school administrator, career education policy, perception of career education

1) Corresponding Author: Jun, JuSung,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 / E-mail: jnet@ssu.ac.kr

초·중·고 학교 관리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장은미 (숭실대학교, 박사과정생)

전주성¹⁾ (숭실대학교, 교수)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가운데 ‘학교 관리자용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초·중·고 학교급별 400교, 총 1,200개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는 대체로 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에 대해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는 진로교육 일반,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 정도,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 학교 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워크의 협조와 지원 영역에 대하여 대체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였다. 셋째,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등이 우선 필요하다.

주요어 : 진로교육, 학교 관리자, 진로교육 정책,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1) 교신저자: 전주성, 교수, (06789)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 E-mail: jnet@ssu.ac.kr
논문투고일자: 2021. 5. 31 / 심사일자: 2021. 6. 1 / 게재확정일자: 2021. 6. 15

I. 서론

목하 우리는 인공지능(AI) 및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Covid-19로 초래된 팬데믹, 세계화,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중장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후속 세대가 경험하게 될 진로(career)의 세계는 이전 세대가 누렸던 안정성과 미래를 위한 보장을 더는 담보하지 않는다. 이제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내러티브는 과거와는 달리 조직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써 내려가도록 강제되고 있다(Savickas, 2019).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진로교육법(법률 제13336호)’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15)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The Ministry of Education, 2016)을 시행하였다. 앞서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The Ministry of Education, 2010)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제2차 계획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개발역량 신장과 범사회적 진로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형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6). 제2차 계획은 진로교육법 시행과 더불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첫 번째 추진과제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급에서는 진로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계획하여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근래 단위학교에 부여되는 자율성과 책무성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교육목표의 수립과 실천,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 수용 등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Choi, 2021). 특히, 단위학교의 학교장은 학생 교육을 위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책무인 학교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일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Shin, 2019). 학교의 중간 관리자인 교감 역시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Choi, 2021; Jun & Jang, 2020). 따라서, 각 학교급에서 진로교육의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의 성공 여부는 단위학교의 학교 관리자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나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교육적 경험과 환경을 제공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행된 초·중등 교육에서의 진로교육 관련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나 진로교육 관련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 또는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진로교육 그 자체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룬다. 먼저,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보면, Lee & Choi(2021)의 전환기 초등학생용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Woo et al.(2021)의 보드게임을 활용한 게이미피케이션 창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이 청소년에게 주는 의미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진로교육 관련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Go & Seo(2021)의 진로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Park & Kim(2021)의 고등학생의 진로교육경험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Ahn & Lee(2021)의 진로성숙, 자아개념, 자기조절 변화에 대한 진로교육의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Oh & Choi(2021)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로계획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탐색, Jung & Lee(2018)의 초등교사의 진로교육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Jeong(2021)의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여건과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관계 분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진로교육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Jeong et al.(2021)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Kim(2021)의 진로역량 중심의 교과통합형 초등학교 진로 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방안 연구, Kim & Kim(2021)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분석, Kang & Son(2021)의 초등학교 통합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진로교육 실태 및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 Jyung et al.(2019)의 진로교육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 실태분석, Moon & So(2016)의 중학교 진로교육 운영 실태분석, Lee(2016)의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특수교육 전공과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에 관한 각급 학교 관리자 등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하다. 현시점에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그간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교 관리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급별로 진로교육에 관한 유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우리나라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현재의 학교 진로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에 근거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나로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진로교육의 당위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여섯 가지 핵심역량의 하나도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이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 September 23).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 전반에서 교육과정 각 영역과 연계하는 교육영역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학교 진로교육 목표로 구체화 된다. The Ministry of Education(2012, April 20)은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로 설정하고, ①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②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③ 진로탐색, ④ 진로 디자인과 준비라는 네 가지 진로교육 영역별로도 추진목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영역별 추진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2, April 20). 첫째,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소질과 적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타인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둘째, 일과 직업의 중요성과 가치,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직업의식을 배양한다. 셋째,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회 및 직업정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체험하며 활용하는 역량을 기른다. 넷째, 자기 이해와 다양한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역량을 기른다.

한편, 우리나라는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설정함에 그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자기이해, 중학교는 진로인식, 고등학교는 진로탐색에 강조점을 둔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0).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일반교과, 범교과, 창체 연계, 현장견학 등 진로체험, 진로학기제 등을 통하여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 창체 연계, 직업체험, 창업체험교육, 진로/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 연계, 공동교육과정, 일반고/직업고 진학 및 취업 지원, 창업체험교육, 진로학기제와 고교학

점제 등을 통해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학교 진로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The Ministry of Education &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9) 중 ‘학교 관리자용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의 연구대상은 초·중고 학교급별 400개교, 총 1,200개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1인이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 배경정보

분류	명수(명)	백분율(%)	
학교급	초등학교	400	33.3
	중학교	400	33.3
	고등학교	400	33.3
성별	남자	813	67.8
	여자	387	32.3
직급	교장	409	34.1
	교감	791	65.9
교육전문직 경험 여부	예	209	17.4
	아니오	991	32.6
합계	1,200	100.0	

2. 조사도구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중 ‘학교 관리자용 조사’ 는 초·중고 공통으로 진로교육 인식 10문항, 진로교육 정책 5문항, 학생의 도전(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 4문항, 진로교육 지역사회 협력 6문항,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1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2>는 조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척도,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α)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조사도구 문항구성 및 척도, 신뢰도

영역	문항수	척도	Cronbach α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10	Likert 5점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	.843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 정도	5	Likert 5점 척도 (1=전혀 도움 안 됨, 5=매우 도움 됨)	.788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	4	Likert 5점 척도 (1=전혀 필요하지 않음, 5=매우 필요함)	.777
학교 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워크의 협조와 지원	6	Likert 5점 척도 (1=매우 부족함, 5=매우 충분함)	.899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개선	1	응답지 내 2개 이내 선택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 문항 간 내적 일치도,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의 인식 차이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Pearson χ^2 과 Fisher exact 검증)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진로교육 관련 영역별 초·중·고 학교 관리자의 인식 기술통계치

아래 <표 3>은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의 진로교육 일반,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 정도,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 학교 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워크의 협조와 지원 영역에 대한 인식 조사 기술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진로교육 관련 영역별 학교 관리자의 인식 기술통계치

영역	문항	초(n=400)	중(n=400)	고(n=400)	전체(N=1,200)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왜도 첨도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①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78(.474)	4.79(.433)	4.71(.517)	4.76 .477	-2.331 8.658
	②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시수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4.03(.901)	3.57(1.031)	3.65(.930)	3.75 .975	-.487 -.138

	③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이 현재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4.28(.796)	3.87(.941)	3.95(.804)	4.03	.867	-.678	.131
	④ 일반교과 수업에 진로교육 요소를 연계한 '교과 연계(통합) 진로교육 수업' 이 필요하다.	4.43(.653)	4.38(.679)	4.23(.682)	4.34	.677	-1.016	2.171
	⑤ 학교 운영 예산이 추가된다면 진로교육 관련 예산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4.07(.829)	3.86(.806)	3.95(.761)	3.96	.803	-.491	.138
	⑥ 관리자(교장·교감) 대상의 진로교육 연수를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	4.49(.633)	4.38(.702)	4.24(.731)	4.37	.697	-1.105	1.916
	⑦ 교사의 진로교육역량 개발을 위해 진로 관련 연수 참여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	4.53(.600)	4.42(.628)	4.32(.666)	4.42	.637	-.919	1.255
	⑧ 학교 진로교육에서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4.05(.887)	4.52(.690)	4.51(.657)	4.36	.782	-1.177	1.342
	⑨ 학교 진로교육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4.67(.544)	4.49(.592)	4.54(.561)	4.57	.571	-1.11	1.455
	⑩ 우리 학교는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20(.729)	4.36(.645)	4.24(.680)	4.27	.688	-.599	.202
학생의 진로개발역 량 향상에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 정도	①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강화	4.30(.678)	4.29(.677)	4.25(.680)	4.28	.678	-.827	1.481
	② 진로체험 활성화	4.43(.708)	4.31(.686)	4.18(.725)	4.31	.713	-.931	1.225
	③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3.77(.988)	.437(.815)	4.33(.838)	4.16	.924	-1.061	.895
	④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행	3.60(.996)	.387(.879)	3.38(.942)	3.62	.961	-.393	-.194
	⑤ 자유학기(학년)제 시행	3.49(1.006)	4.12(.797)	3.20(1.029)	3.60	1.023	-.524	-.086
학생의 도전(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체험교육의 필요성	①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화	4.09(.849)	4.07(.786)	4.00(.810)	4.05	.816	-.611	.273
	②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	4.20(.758)	4.12(.713)	4.04(.682)	4.12	.721	-.653	.923
	③ 진로교과 수업 시간에 실시	3.90(.838)	4.27(.710)	4.13(.710)	4.10	.770	-.800	1.123
	④ 학생 자율동아리로 실시	4.03(.808)	4.14(.733)	4.15(.762)	4.11	.770	-.712	.835
학교 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 워크의 협조와 지원	①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조 및 지원	3.83(.823)	4.05(.736)	3.61(.854)	3.83	.825	-.402	-.075
	② 학부모들의 협조 및 지원	3.31(.908)	3.53(.864)	3.18(.943)	3.34	.916	-.183	-0.073
	③ 민간기업 및 체험처의 협조 및 지원	2.87(.957)	3.29(.910)	2.97(.964)	3.04	.960	.000	-0.233
	④ 지역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 및 지원	3.18(.978)	3.48(.906)	3.14(.952)	3.26	.958	-.092	-.348
	⑤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센터의 협조 및 지원	3.51(.813)	3.83(.791)	3.55(.848)	3.63	.830	-.114	-.324
	⑥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협조 및 지원	3.24(.944)	3.71(.869)	3.29(.888)	3.41	.925	-.175	-.225

먼저, 진로교육 일반에 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문항 ②와 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문항 ②, ③, ⑧을 보면, 초·중·고 학교 관리자 간에 평균 .3 이상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항 ②와 ③의 ‘진로교육 시수 확대’와 ‘진로체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초등이 중등학교 관리자보다 더욱 적극적이었다. 반면, 문항 ⑧의 ‘진로전담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등이 초등학교 관리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 정도에 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보면, 문항 ④와 ⑤를 제외하고는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문항 ②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정책에 대한 도움 정도 인식에서 중등학교 관리자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초등은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문항 ④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행’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 관리자 모두 그 도움 정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문항 ⑤의 ‘자유학기(학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중학교 관리자만 대체로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보면, 네 문항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워크의 협조와 지원에 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문항 모두 평균 3점대의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문항 ②, ③, ④, ⑥의 경우는 특히, 초·중·고 학교 관리자 모두 낮은 인식을 보여주어, 역설적으로 학교 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워크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2. 진로교육 일반에 대한 인식 차이

다음 <표 4>는 진로교육 일반에 대하여 초·중·고 학교 관리자 간의 동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동의 여부는 Likert 척도에서 ‘보통 이하’와 ‘동의함 이상’의 두 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4> 진로교육 일반에 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 차이

문항	응답	단위: 명(%)				Fisher/ χ^2
		초	중	고	전체	
①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이하	4(1.0)	7(9)		11(9)	1.000 (Fisher exact)
	동의함 이상	396(99.0)	793(99.1)		1189(99.1)	
전체		400	400	400	1200	

②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시수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보통 이하	102(25.5)	193(48.3)	169(42.3)	357(38.7)	46.896***
	동의함 이상	298(74.5)	207(51.7)	231(57.8)	736(61.3)	
전체		400	400	400	1200	
③ 학교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이 현재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통 이하	57(14.2)	131(32.8)	108(27.0)	296(24.7)	38.594***
	동의함 이상	343(85.8)	269(67.3)	292(73.0)	904(75.3)	
전체		400	400	400	1200	
④ 일반교과 수업에 진로교육 요소를 연계한 '교과 연계(통합) 진로교육 수업' 이 필요하다.	보통 이하	24(6.0)	31(7.8)	44(11.0)	99(8.3)	6.804*
	동의함 이상	376(94.0)	369(92.3)	356(89.0)	1101(91.8)	
전체		400	400	400	1200	
⑤ 학교 운영 예산이 추가된다면 진로교육 관련 예산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보통 이하	82(20.5)	133(33.3)	98(24.5)	313(26.1)	17.644***
	동의함 이상	318(79.5)	267(66.8)	302(75.5)	887(73.9)	
전체		400	400	400	1200	
⑥ 관리자(교장·교감) 대상의 진로교육 연수를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	보통 이하	23(5.8)	38(9.5)	45(11.3)	106(8.8)	7.844*
	동의함 이상	377(94.3)	362(90.5)	355(88.8)	1094(91.2)	
전체		400	400	400	1200	
⑦ 교사의 진로교육역량 개발을 위해 진로 관련 연수 참여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	보통 이하	15(3.8)	23(5.8)	37(9.3)	75(6.3)	10.581**
	동의함 이상	385(96.3)	377(94.3)	363(90.8)	1125(93.8)	
전체		400	400	400	1200	
⑧ 학교 진로교육에서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통 이하	105(26.3)	31(7.8)	23(5.8)	159(13.3)	88.913***
	동의함 이상	295(73.8)	369(92.3)	377(94.3)	1041(86.8)	
전체		400	400	400	1200	
⑨ 학교 진로교육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통 이하	10(2.5)	14(3.5)	13(3.3)	37(3.1)	.725
	동의함 이상	390(97.5)	386(96.5)	387(96.8)	1163(96.9)	
전체		400	400	400	1200	
⑩ 우리 학교는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보통 이하	67(16.8)	35(8.8)	45(11.3)	147(12.3)	12.466**
	동의함 이상	333(83.3)	365(91.3)	355(88.8)	1053(87.8)	
전체		400	400	400	1200	

* $p < .05$, ** $p < 0.01$, *** $p < .001$

문항 ①은 초·중·고 학교급별 비교 시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50%이기 때문에 이 문항의 경우는 초등과 중등학교로 나누어 Fisher의 exact 검증을 시행하였다. Fisher의 exact p 는 1.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초·중·고 학교 관리자 모두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9% 이상 동의하였다.

문항 ②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시수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6.896, p<.001$). 초등의 경우는 74.5%의 학교 관리자가 진로교육 시수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51.7%, 고등학교는 57.8%만이 동의하였다.

문항 ③의 ‘학교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이 현재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8.594, p<.001$). 진로체험 활성화 여부에 대하여 초등은 85.8%가, 중학교는 67.3%, 고등학교는 73.0%가 동의하였다.

문항 ④의 ‘일반교과 수업에 진로교육 요소를 연계한 ‘교과 연계(통합) 진로교육 수업’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804, p<.05$). 교과 연계 진로교육 수업 필요 여부에 대하여 초등은 94.0%가, 중학교는 92.3%, 고등학교는 89.0%가 동의하였다.

문항 ⑤의 ‘학교 운영 예산이 추가된다면 진로교육 관련 예산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7.644, p<.001$). 진로교육 관련 예산확충의 우선적 고려 여부에 대하여 초등은 79.5%가, 고등학교는 75.5%가 동의하였지만, 중학교는 66.8%만이 동의하였다.

문항 ⑥의 ‘관리자(교장·교감) 대상의 진로교육 연수를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7.844, p<.05$). 진로교육 연수 참여에 대해서 초등은 94.3%가, 중학교는 90.5%, 고등학교는 88.8%가 동의하였다.

문항 ⑦의 ‘교사의 진로교육역량 개발을 위해 진로 관련 연수 참여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0.581, p<.01$). 교사의 진로 관련 연수 참여 지원에 대하여 초등은 96.3%가, 중학교는 94.3%, 고등학교는 90.8%가 동의하였다.

문항 ⑧의 ‘학교 진로교육에서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88.913,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73.8%)보다 고등학교(94.3%)와 중학교(92.3%)에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⑨의 ‘학교 진로교육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

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725, p>.05$).

문항 ⑩의 ‘우리 학교는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2.466, p<.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3.3%)보다 중학교(91.3%)와 고등학교(88.8%)에서 더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진로교육 정책이 학생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미친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아래 <표 5>는 진로교육 정책들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표 5>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 정도에 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 차이

문항	응답	초	중	고	전체	명(%)
						Fisher/ χ^2
①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강화	보통 이하	39(9.8)	76(9.5)		115(9.6)	.917 (Fisher 유의도)
	도움 됨 이상	361(90.3)	724(90.5)		1085(90.4)	
	전체	400	400	400	1200	
② 진로체험 활성화	보통 이하	6(1.5)	3(.8)	8(2.0)	17(1.4)	2.267
	도움 됨 이상	394(98.5)	397(99.3)	392(98.0)	1069(98.6)	
	전체	400	400	400	1200	
③ 진로전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보통 이하	33(8.3)	14(3.5)	13(3.3)	60(5.0)	13.368**
	도움 됨 이상	367(91.8)	386(96.5)	387(96.8)	1140(95.0)	
	전체	400	400	400	1200	
④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행	보통 이하	49(12.3)	25(6.3)	64(16.0)	138(11.5)	19.013***
	도움 됨 이상	351(87.8)	375(93.8)	336(84.0)	1062(88.5)	
	전체	400	400	400	1200	
⑤ 자유학기(학년)제 시행	보통 이하	55(13.8)	14(3.5)	84(21.0)	153(12.8)	55.599***
	도움 됨 이상	345(86.3)	386(96.5)	316(79.0)	1047(87.3)	
	전체	400	400	400	1200	

** $p<.01$, *** $p<.001$

문항 ①의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강화’에 대해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sher exact $p=.917$).

문항 ②의 ‘진로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2.267, p>.05$).

문항 ③의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3.368, p<.01$). 초등학교(91.8%)보다 중학교(96.5%)와 고등학교(96.8%)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문항 ④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행’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9.013, p<.001$). 초등학교(87.8%)와 고등학교(84.0%)보다 중학교(93.8%)가 훨씬 더 그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 ⑤의 ‘자유학기(학년)제 시행’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5.599, p<.001$). 이 역시 초등학교(86.3%)와 고등학교(79.0%)보다 중학교(96.5%)가 훨씬 더 그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4.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다음 <표 6>은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표 6>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초·중·고 관리자들의 인식 차이

문항	구분	초	중	고	전체	명(%)
						χ^2
①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화	보통 이하	94(23.5)	84(21.0)	104(26.0)	282(23.5)	2.781
	필요함 이상	306(76.5)	316(79.0)	296(74.0)	918(76.5)	
	전체	400	400	400	1200	
②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	보통 이하	52(13.0)	71(17.8)	70(17.5)	193(16.1)	4.236
	필요함 이상	348(87.0)	329(82.3)	330(82.5)	1007(83.9)	
	전체	400	400	400	1200	
③ 진로교과 수업 시간에 실시	보통 이하	112(28.0)	42(10.5)	57(14.2)	211(17.6)	46.866***
	필요함 이상	288(72.0)	358(89.5)	343(85.8)	989(82.4)	
	전체	400	400	400	1200	

④ 학생 자율동아리로 실시	보통 이하	89(22.3)	76(19.0)	61(15.3)	226(18.8)	6.422*
	필요함 이상	311(77.8)	324(81.0)	339(84.8)	974(81.2)	
전체		400	400	400	1200	

* $p < .05$, *** $p < .001$

문항 ①의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화’에 대해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2.781$, $p < .05$).

문항 ②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4.236$, $p < .05$).

문항 ③의 ‘진로교과 수업 시간에 실시’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6.866$, $p < .001$). 초등학교(72.0%)보다 중학교(89.5%)와 고등학교(85.8%)가 더 높았다.

문항 ④의 ‘학생 자율동아리로 실시’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422$, $p < .05$). 이 역시 초등학교(77.8%)보다 중학교(81.0%)와 고등학교(81.2%)가 더 높았다.

5. 진로교육과 관련한 학교내·외의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 네트워크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인식

다음 <표 7>은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 네트워크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표 7>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협조와 지원에 대한 초·중·고 관리자들의 인식 차이

문항	응답	단위: 명(%)				χ^2
		초	중	고	전체	
①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조 및 지원	보통 이하	125(31.3)	86(21.5)	168(42.0)	379(31.6)	38.928***
	충분함 이상	275(68.8)	314(78.5)	232(58.0)	821(68.4)	
전체		400	400	400	1200	
② 학부모들의 협조 및 지원	보통 이하	238(59.5)	190(47.5)	264(66.0)	692(57.7)	28.865***
	충분함 이상	162(40.5)	210(52.5)	136(34.0)	508(42.3)	
전체		400	400	400	1200	

③ 민간기업 및 체험처의 협조 및 지원	보통 이하	309(77.3)	242(60.5)	292(73.0)	843(70.3)	29.020***
	충분함 이상	91(22.8)	158(39.5)	108(27.0)	357(29.8)	
전체		400	400	400	1200	
④ 지역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 및 지원	보통 이하	265(63.7)	205(51.2)	261(65.3)	721(60.1)	19.708***
	충분함 이상	145(36.3)	195(48.8)	139(34.8)	479(39.9)	
전체		400	400	400	1200	
⑤ 시·도교육청의 협조 및 지원	보통 이하	207(51.7)	135(33.8)	188(47.0)	530(44.2)	28.231***
	충분함 이상	193(48.3)	265(66.3)	212(53.0)	670(55.8)	
전체		400	400	400	1200	
⑥ 지역 진로체험지원 센터의 협조 및 지원	보통 이하	247(61.8)	154(38.5)	245(61.3)	646(53.8)	56.780***
	충분함 이상	153(38.3)	246(61.5)	155(38.8)	554(46.2)	
전체		400	400	400	1200	

*** $p < .001$

문항 ①의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서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8.928$, $p < .001$). 학교 내 구성원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 고등학교(42.0%)가 초등학교(31.3%)와 중학교(21.5%)보다 훨씬 덜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 ②의 ‘학부모들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8.865$, $p < .001$). 중학교(52.5%)만 간신히 과반을 넘겼을 뿐 초등학교(40.5%)와 고등학교(34.0%)는 학부모들의 협조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문항 ③의 ‘민간기업 및 체험처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9.020$, $p < .001$). 초·중·고 모두 민간기업 및 체험처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초등(22.8%)의 경우는 중학교(39.5%)와 고등학교(27.9%)에 비해 특히 더 낮았다.

문항 ④의 ‘지역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9.708$, $p < .001$). 이 경우도 중학교(48.8%)만 상대적으로 다소 높을 뿐 초등(36.3%)과 고등학교(34.8%)는 협조와 지원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 ⑤의 ‘시·도교육청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8.231$, $p < .001$). 초등(48.3%)의 경우는 중학교(66.3%), 고등학교(53.0%)보다 시·도교육청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문항 ⑥의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해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6.780$, $p < .001$).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협조 및 지

원에 대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중학교(61.5%)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초등(38.3%)과 고등학교(38.8%)는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영역

다음 <표 8>은 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각 학교 관리자는 응답지 가운데 2개 이내로 중복으로 선택하였다.

<표 8> 초·중·고 관리자들이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단위: 명)

문항	학교급	초	중	고	전체
①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126	142	142	410
②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144	176	217	537
③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		196	145	135	476
④ 학교 내부 구성원의 협조		32	44	63	139
⑤ 학교 외부 자원(기관, 기업)의 협조		109	90	61	260
⑥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사회 인식 개선		86	107	97	290
⑦ 다양한 학생의 특성이나 유형을 고려		96	89	82	267

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은 순위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을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V. 결론

예견되는 현재 및 미래사회의 역동적 변화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후속 세대 대상의 진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의 학교 경영철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 교육과정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의 역량이 증대되기도 혹은 약화되기도 할 것이다. 단위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토대로 학교의 실정과 실태에 맞게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 진로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진로교

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진로교육법(법률 제13336호)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시점에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비교해보는 것은 학교 진로교육의 실태를 파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는 대체로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에 대해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워크의 협조와 지원 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 모두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 등에 대해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학교 진로교육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교 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워크 등의 협조와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과제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교 관리자의 네트워킹 구축 역량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제도적인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는 진로교육 일반,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진로교육 정책의 도움 정도,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의 필요성, 학교 내·외 인적자원, 유관기관, 지역네트워크의 협조와 지원 영역에 대하여 대체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교급별 특성과 교육환경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교육 일반 영역에서 초·중·고 학교 관리자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진로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학교급별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 시수 확대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이 현재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 연계(통합) 진로교육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 관리자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과통합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에서 더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중·고 학교 관리자 모두 학교 운영 예산이 추가된다면 진로교육 관련 예산을 우선하여 확충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 관리자들은 진로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의 진로교육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 관련 연수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급에 상관없이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었다.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 관리자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더 높은 동의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이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진로교육에서 담임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모두 높은 비율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 모두 학교특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높게 동의하였다.

진로교육정책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체험 활성화에 대해 학교급별 학교 관리자 모두 높은 비율로 이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높은 비율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더 많은 이유는 담임교사 중심의 초등학교와 교과교사 중심의 중등학교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가 진학지도와 진로상담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므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행과 자유학기(학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학교급 간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모두 높은 비율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에서 동의 응답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자아탐색 중심의 초등학교와 입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등학교의 특성이 응답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 영역에서는 초·중고 학교 관리자 모두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진로교과 수업 시간, 학생 자율동아리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모두 높은 동의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진로교과 수업 시간 및 학생 자율동아리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보다 동의율이 낮았는데, 이는 담임이 거의 모든 교과를 맡아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 관리자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협조와 지원 영역에 관한 인식을 보면, 학교급별 차이는 있었지만, 위의 다른 영역보다 충분하다는 인식이 대체로 낮았다. 특히, 학부모, 민간기업 및 체험처, 지역 진로체험센터, 시·도교육청의 협조와 지원에 대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나마 중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 충분하다는 인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등이 우선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 전환과 역량 강화는 물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

다. 다행히도, The Ministry of Education(2020)은 ‘2021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에서,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제고를 추진목표로 삼고,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계획이 계획만으로 그치지 않고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References

- Ahn, H. S., & Lee, J. S. (2021).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of career interventions on the longitudinal changes of adolescent career maturity and self-processe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4*(1), 323-343. ☞ 국문: 안현선, 이지수(2021). 진로성숙, 자아개념, 자기조절 변화에 대한 진로교육의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교육문제연구, 34*(1), 323-343.
- Choi, Y. M. (2021). *Development of a job competence model for elementary school vice princip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국문: 최영미(2021). **초등학교 교감의 직무역량모델 개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Go, S. I., & Seo, E. H. (2021). The effect of career program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areer Education Act: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501-525.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501> ☞ 국문: 고성임, 서은희(2021). 진로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법 시행 이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501-525.
- Jeong, S. M. (2021).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career educational conditions and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4*(1), 31-59. ☞ 국문: 정설미(2021).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여건과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관계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4*(1), 31-59.
- Jeong, Y. K., Ryu, J. E., Ahn, Y. J., & Kwak, C. L. (2021). The status and tasks of career education by introduc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3*(1), 105-127. <http://dx.doi.org/10.23840/agehrd.2021.53.1.105> ☞ 국문: 정윤경, 류지은, 안유진, 박초롱(202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3*(1), 105-127.
- Jun, H. L., & Jang, S. M. (2020). A study on vice principals' perception of their roles and the meaning of qualification training: Subject to the newly appointed vice principal of middle school.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6*(4), 167-192. <https://doi.org/10.14333/KJTE.2020.36.4.167> ☞ 국문: 전해령, 장수명(2020). 교감의 역할 수행과 자격연수에 대한 인식 고찰: 중학교 초임교감을 대상으로. *교원교육, 36*(4), 167-192.
- Jung, Y. H., & Lee, K. H.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ment scale for the career education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1), 1-27. <http://dx.doi.org/10.34226/gcl.2018.8.1.1> ☞ 국

- 문: 정영화, 이경화(2018). 초등교사의 진로교육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1), 1-27.
- Jyung, C. Y., Lee, Y. W., Kim, T. H., Choi, R. M., Lee, S. Y., Park, S. H., & Park, S. Y. (2019). An analysis of research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career educ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4), 331-357. <https://doi.org/10.32341/JCER.2019.12.32.4.331> 국문: 정철영, 이유우, 김태환, 최로미, 이승엽, 박신희, 박선영 (2019). 진로교육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 실태분석. **진로교육연구**, 32(4), 331-357.
- Kang, O. R., & Son, I. J. (2021).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s of inclusive classroom teachers for career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inclusive settings of elementary school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2(1), 371-386. <http://dx.doi.org/10.20972/Kjee.32.1.202103.371> 국문: 강옥려, 손일지(2021). 초등학교 통합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진로교육 실태 및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 **한국초등교육**, 32(1), 371-386.
- Kim, S. M., & Kim, J. H. (2021).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career education in 5th and 6th grade textbooks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5), 57-72.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5.57> 국문: 김수민, 김재호(20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57-72.
- Kim, S. Y. (2021). A study on the curriculum and design method of curriculum and class for the integrated elementary school based on career compete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3), 313-338.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3.313> 국문: 김선영(2021). 진로역량 중심의 교과통합형 초등학교 진로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313-338.
-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15). *Career Education Act*. [https://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13336,20150622\)](https://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13336,20150622)) 국문: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진로교육법(법률 제13336호)**.
- Lee, J. Y. (2016).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post-secondary vocational program in special education on the career education perspectiv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1), 25-46. 국문: 이지연(2016).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특수교육 전공과 운영 활성화 방안. **진로교육연구**, 29(1), 25-46.
- Lee, K. T., & Choi, J. Y. (2021). The needs analysis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9), 833-844.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9.833> 국문: 이기태, 최지연(2021). 전환기 초등학생용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833-844.

- Moon, J., & So, K. H. (2016). An analysis of implementation of care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excellent schools in curriculu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4), 135-155. ☞ 국문: 문진, 소경희(2016). 중학교 진로교육 운영 실태분석: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4), 135-155.
- Oh, Y. J., & Choi, K. L. (2021).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lans and career competencies by high school typ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273-293.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273> ☞ 국문: 오윤정, 최규리(2021). 고등학교 유형별 진로계획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273-293.
- Park, W. S., & Kim, M. S.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129-1147.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1129> ☞ 국문: 박완성, 김미숙(202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경험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1129-1147.
- Savickas, M. L. (2019). *Career counseling*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0000105-000>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0). *2020 materials to support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urriculum centered on care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7668&ctgCd=207> ☞ 국문: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초등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 Shin, H. J. (2019). *A study on the curriculum leadership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국문: 신화자(2019). **초등학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0). *The first comprehensive career education plan (2010~2013)*.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40103&s=moe&fileSeq=0c8c5ef98c04da42770825c0db476779> ☞ 국문: 교육부(2010).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 교육부.
-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2, April 20). *School career education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3138929&tblKey=GMN> ☞ 국문: 교육부(2012.4.20). **학교 진로 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 교육부
-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curriculu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C&s=moe&m=0302&opType=N&boardSeq=62381> ☞ 국문: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 September 23). *General overview o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607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0&s=moe&m=040401&opType=N> ㉮ 국문: 교육부(2015.9.2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6). *The secon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16~202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2793&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52&s=moe&m=0501&opType=N> ㉮ 국문: 교육부(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교육부.
- The Ministry of Education. (2020). *2021 career education support plan*.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83592> ㉮ 국문: 교육부(2020). **2021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교육부.
- The Ministry of Education &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9). *2019 survey on the present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200049> ㉮ 국문: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Woo, C. Y., Lee, E. Y., & Jang, H. J. (2021).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gamification job-creation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board game to adolesc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30(1), 125-137. <http://dx.doi.org/10.17643/KJCE.2021.30.1.06> ㉮ 국문: 우채영, 이은영, 장현정(2021). 보드게임을 활용한 게이미피케이션 창작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이 청소년에게 주는 의미. **아동교육**, 30(1), 125-137.